



# 2012 예상되는 미국의 녹색정책 변화

## 정부지원 그린기업 파산, 전기차 판매 부진

2011년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태양광 패널 업체인 솔린드라가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 지원을 펼친 그린카 산업의 수요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녹색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높아진 한해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값비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미국 태양광 패널 산업은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오바마 행정부의 야심찬 녹색산업 지원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향후 미국 의회는 녹색산업 지원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에도 여전히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녹색산업 분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전망

미국 청정기술 산업 분석 및 컨설팅 업체인 Kachan & Co.는 2012년 미국의 청정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5.3억 달러의 세금 지원을 받은 솔린드라가 파산함에 따라 정부의 그린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결과 그린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부흥을 위해 에너지 산업 진흥정책은 여전히 핵심 어젠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선거 결과에 따라 그린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축소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보조금 감소에 따른 재생에너지 산업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파도, 조수, 해양열을 이용한 해양 전력 개발에 대한 투자는 활발히 진행되겠지만 저렴한 전력자원인 화석 연료와 가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 하는데 장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2년 연방정부기관 에너지 효율빌딩으로 재보수 의무화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4일 40억 달러에 이르는 공공-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대통령 계획안을 발표했다. 연방 및 일반 민간건물을 에너지 효율 건물로 재보수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 에너지부의 2011년 2월 제안된 Better Build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전역의 모든 상업건물의 최소 20%를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 건물로 재보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건물의 재보수를 위해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를 실행할 예정인데 이는 모든 연방

정부기관이 향후 2년 동안 20억 달러의 에너지 절약을 보장할 수 있는 재보수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법령화 된 법안은 정부기관이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서비스 업체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연방정부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출금액 절약을 달성, 재보수에 드는 비용을 향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초기비용 및 세금 투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방식이다.

상업건물의 에너지 효율 재보수는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20억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16억 제곱 피트에 달하는 상업건물 재보수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친환경 건물 재보수에 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이유는 2010년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소모율이 전체 40%를 차지하였으며 에너지 사용에 4천억 달러가 소비되어 동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매년 4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11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어 미 녹색정책 사업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전기차 판매 고전에 따른 정책 변화 예상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까지 그린카 산업에 총 50억 달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린산업 활성화 등과 같은 기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 제너럴 모터스(GM)사가 2010년 출시한 전기자동차 Volt가 낮은 판매율을 보이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자동차 안전 테스트 도중 배터리 화재사고가 발생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GM이 당초 예상한 1만대에도 판매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부정적인 전망이 전체 그린카 산업으로 퍼지고 있다. 또 기술개발로 인해 일반 연료로 가동되는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비싼 비용을 지급하면서 굳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과 같은 그린카를 이용하는데 따른 혜택을 찾기 힘들어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린카 산업의 침체로 연관 산업인 배터리 산업도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주문량 감소로 업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기대했던 제조업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감을 배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린카 산업육성이 해외 오일 의존도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듭 강조하였지만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 부족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그린카 지원정책 외에도 최근 자동차 연비효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차량 연비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20년 전과 비교해도 연료효율 기술개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은 미 자동차 연비기준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반 연료로 작동하는 자동차의 연비기준이 유럽처럼 개선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래전부터 연료사용량이 높은 자동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엄격한 연비기준을 설정해온 유럽의 경우, 연비 효율 차량에 대한 개발을 활발히 실행해와 2025년에 일반 자동차의 연비기준이 그

린카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오늘 날 영국에서 판매되는 신형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갤런당 52.5 마일로 10년 전 40.6 마일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미국은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가의 그린카를 구매할 수 있는 인구가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의 연비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체 생존전략으로 초기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100% 전기차 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투자를 증가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출처 : Economist

###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로 수입산 의존도 감소전망

미국은 멕시코 만 심해 시추와 수력 시추기술 개발을 통한 내륙 원유 시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영토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 오일 공급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 만 원유 유출사고로 중단되었던 심해시추가 12월 14일부터 다시 임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시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임대료를 두 배로 높이고 더 엄격한 규정을 설립해 원유시추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기는 하다. 미국은 40년 동안 원유 생산이 감소되었지만 2011년 시추 기술개발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여 62년 만에 최초로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개도국으로의 수요 증가 및 미국 내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미국 내 원유가 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의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유 수출입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미국 내 활발한 원유 생산으로 자급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원유 생산 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환경오염이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원유 산업을 저해하는 정책이 제안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수입을 이용한 셰일가스 및 내륙원유 추출방식이 잘못 수행될 경우 엄청난 환경적 재난을 가지고 올 수 있어 이를 규제하는 정책도 향후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K**